

“야! 망둥어다, 농게다”… 갯벌 생물 몸놀림에 감탄

■ 전남도관 ‘갯벌’ 인기

“아! 망둥어다”
아쿠아리움을 제외하고 갯벌을 통째로 옮겨와 유일하게 살아 있는 전시물을 선보이고 있는 전남도관이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 여수, 서울, 부산 등 국내 23개 지자체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남도관은 신안 증도에서 갯벌 5t를 공수해왔다.

전남도관이 선보이고 있는 갯벌 수조(6×3×1.3m)에는 철개, 농개, 말뚝망둥어, 농개, 갯지렁이 등의 갯벌 생물을 그대로 옮겨와 찾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갯벌 수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갯벌을 바로 앞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연출됐다.

눈 앞에서 접게다리를 오므렸다 했다 하는 철개와 농개의 모습에 아이들은 수조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인기척에 놀라 굴 속으로 숨는 망둥어의 몸놀림에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 수조는 특별히 먹이를 주지 않고, 생물들이 번식이 빠른 갯지렁이 등을 잡아먹고 자라는 생태계 먹이 사슬을 그대로 연출해 교육적



13일 전남도 고영운 여수박람회지원관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관 중 하나인 전남도관에 전시된 갯벌 수조를 설명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효과도 크다.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갯벌을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고, 갯벌을 해집고 다니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는 갯지렁이의 움직임도 엿볼 수 있다.

또 국내 천일염 82%를 생산하는

는 등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전남도 고영운 여수박람회지원관은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갯벌 수조를 생각해냈다”면서 “아이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눈 앞에서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해양수산과학관이 개발한 이 수조는 자체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3일 버려진 쓰레기로 전시장 입구를 꾸민 싱가포르관은 자전거로 떠나는 싱가포르 여행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싱가포르는 다양한 관람객 체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3차원 영상쇼를 선보이며 도심과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싱가포르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전달하고, 싱가포르 도심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체험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관람객이 폐箪을 밟으면, 영상 속으로 자전거가 달리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싱가포르 도심을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한 방울의 물을 조심스럽게 받아 종이에 찍은 잉크를 번지게 하는 체험 행사이기도 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호주관 “캥거루 갈비찜 드실래요?”

■ 이색 국가관 눈길

“캥거루 고기 드실래요? 자전거 타고 싱가포르 도심을 달려보실래요?”

각국의 개성이 듬뿍 담긴 국가관들이 관람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04개 나라가 각각 전시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관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캥거루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여수엑스포를 위해 호주 워너랜드 지역에서 캥거루 고기를 가져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한 ‘캥거루 갈비찜’을 선보이고 있다.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 최대 산호초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준다.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 바닷속 탐험을 통해 관람객들은 바다거북 등 진귀한 수중생물을 만날 수 있다.

다이버와 직접 질문하고 답하면서 호주의 생태관광 및 해양 교육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관람객 체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3차원 영상쇼를 선보이며 도심과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싱가포르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전달하고, 싱가포르 도심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체험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관람객이 폐箪을 밟으면, 영상 속으로 자전거가 달리는 듯한 착각이

이 밖에 스위스관은 ‘물’의 원천인 스위스 빙하를 소개하고, 이스라엘 관광 첨단기술과 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진 ‘업체 기동’ 사이로 가상의 삶해를 탐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입니다.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기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남남북도 일원의 투자가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양화 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 권리)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 수수료나 몇 푼 쟁기기에 금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우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당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우나 (마매)

지역Ⅱ 북구 신동(사우나·현 설립중)
면적Ⅱ 대지 약900평, 건평: 2500평
지역Ⅲ 첨단디자인 월계동(무인텔·글마미)
면적Ⅳ 대지: 338평, 건평: 440평, 객실: 22실
지역Ⅳ 광진면 미달 부근 모텔(하우스 사용가능)
면적Ⅳ 대지: 약1000평, 건평: 2803평
지역Ⅴ 복수동 대지 314평 미래
지역Ⅵ 수완지구 롯데마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Ⅱ 담당 1인평~2만평 이상
5평~10평
지역Ⅲ 장성 1만평~5만평
(각 택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실전투자반 / 회비 330만원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 박람회 이모저모

○…전 세계를 돌며 박람회를 관람하고 있는 일본인 후타카미 아즈시씨가 지난 12일 새벽 3시50분부터 줄을 선 끝에 첫 공식 입장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회사원인 그는 중국 상하이 박람회를 비롯해 2000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 2008년 포르투갈 리스본 박람회까지 직접 관람한 박람회만도 12개에 달하는 ‘박람회 마니아’.

후타카미씨는 “일본 고베항이 태어나 자란 곳인데 바다에 접한 여수엑스포장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아름답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향한 여수의 약속 ‘여수선언’ 지지서명 운동이 박람회 개장과 함께 시작됐다.

박람회 조직위는 12일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여수선언’ 지지서명을 박람회 개장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첫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인 성김 대사가 지난 12

성김 주한 美대사 방문객 맞이 눈길

시·도의회의장협 성공 한목소리

해남 진양주, 개막식 공식 만찬주로

불꽃 놀이 비용은 9억원 가량으로, 제작에만 1주일이 걸렸다.

○…박람회장 인근 엠플호텔(THE MVL HOTEL)이 개막식에 참석한 텐마크 왕세자 부부 등 각국 ‘별들’의 숙소’로 광주에 맞았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폐루 대통령, 텐마크 왕세자 내외, 각국 주한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투숙해 호텔 주변은 경호를 위한 보안요원들과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관람객들이 직접 전송한 얼굴 사진으로 만들어진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의 디지털 바다를 해엄치는 꿈의 고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매시간 10분과 40분 사이에 두 차례 진행되는 꿈의 고래 타이밍에 맞춰 스마트폰 ‘엑스포 UCC’ 앱을 이용해 자신 또는 가족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사진들이 모여 고래 이미지가 완성된다.

○…전 세계를 향한 여수의 약속 ‘여수선언’ 지지서명 운동이 박람회 개장과 함께 시작됐다.

○…개막식이 열린 12일 국제관 4개동(A~D동) 사이에 조성된 벽면 화단 꽃밭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사한 모습과는 달리 정체불명의 악취가 풍겨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악취는 화단의 꽃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자 액스포조직위원회가 개장일을 앞두고 급한 나머지 성장률을 촉진하기 위해 뿌린 거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환경 합설을 원료로 빚어 은은한 향과 맛이 달콤하고 뒤끝이 깊은 해남 ‘진양주’가 박람회 개막식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지정된 진양주는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조선 현종 때 궁중에서 어주(御酒)를 끓인 궁녀 최씨가 영암 덕진면 광산 김씨 집안에 후실로 들어와 비법을 전수했다.

○…롯데면세점이 12일 박람회장 내 한국관 맞은편 문을 열고 설화수, 정관장 등 국내 브랜드 제품과 향수, 주류, 시계, 액세서리 등 53개 품목 판매에 들어갔다.

한류 스타인 장근석, 김현중, 송승현, 2PM, 최지우 등 롯데면세점 모델들의 대형사진을 외벽에 게시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취재팀〉

일 정부 대표 자격으로 박람회 미국관에서 첫 방문객을 맞이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관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와 해양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개막식이 열린 11일 박람회장 정문에는 104개 참가국과 10개 국제기구 국가가 일제히 계양됐다.

국기 계양행사는 이날 오전 강동석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과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104개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해양 역사의 이정표로서 미래 인류문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박람회가 국가 위상을 높여주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개막식이 열린 지난 11일 밤 13분간 펼쳐진 불꽃 놀이에서는 1만발의 불꽃이 쏘아 올려져 여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관람객들은 형형색색 화려한 불꽃이 터질 때마다 카